



| 엘리야 예언자와 사렐타 마을의 과부 <베르나르도 스트로지, 캔버스에 유채, 1635년 경. 비엔나 예술사박물관 소장>

금주의 성화

이 그림은 오늘 첫 번째 독서에 나오는 엘리야 예언자와 사렐타 마을의 과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빈 뒤주와 기름병을 잡고 있는 과부와 밀가루 한 줌이 든 사발을 들어 보이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약속을 전한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뚫고 들어온 예언자의 말에 놀란 두 모녀의 표정은 믿고는 싶는데 믿기지 않는 이 희망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그들의 심정을 고스란히 전한다.

† 오늘의 전례

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마르 12,38-44 참조)

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분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바치는 것은 원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봉헌할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것은, “아빠, 사랑해요!”라는 효성어린 마음입니다.

제1독서 1열왕 17,10-16

제2독서 히브 9,24-28

복음 마르 12,38-44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11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참된 봉헌



이수승 베드로 신부 | 논공본당 주임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헌금궤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헌금궤 맞은편으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시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동전만 썼기 때문에 헌금궤에 떨어지는 돈 소리도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조금은 거들먹거리면서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아 주기를 바라면서 헌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부끄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눈여겨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돈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진정으로 더 많이 내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액수가 큰 헌금을 내놓은 부자보다 그야말로 동전한 닢을 넣은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의 크고 작음은 객관적인 액수의 과다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놓은 헌금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부자들에게는 그 헌금이 큰 의미가 없는 액수입니다. 그들의 생활에 별다른 지

장을 초래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과부에게는 그 헌금이 자기가 가진 것 전부였습니다. 헌금을 함으로써 이 과부는 자기 생계에 대해서 모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금하였습니다. 결국 자기의 일부를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헌금, 또는 남을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진 바의 일부, 또는 쓰고 남은 나머지를 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의 일부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느님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바치며 살고 있습니까? 또 나는 과연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내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떠한 마음과 정성으로 봉헌하고 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에게 바치는 것이니 사랑이 깃든 기꺼운 마음으로 정성껏 봉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는 심정으로, 아니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깎으려는 심정으로, 또는 팁을 내는 심정으로 봉헌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쳐보도록 합시다. **가톨릭**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③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전의 공의회들과는 많이 다른 공의회였습니다. 우선 공의회를 열게 된 동기가 달랐습니다. 전에는 늘 이단 문제라든지 교회 생활에 중대한 폐해가 있어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공의회를 열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을 때는 이단이나 교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23세 교황님이 공의회를 열자고 하셨을 때 모두들 “무엇 때문에?”라고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의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치면서 20세기의 사람들은 회의를 느끼며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현대 세계의 도전에 당황해서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을 상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암울한 시대에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 ‘시대의 징표’를 읽으시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교황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교황님은 공의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집무실 창문을 활짝 여시면서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요한 23세 교황님이 기대하셨던 ‘신선한 공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바로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입니다. 흔히 ‘현대화’로 번역되는 이 이탈리아 말은 달리 ‘쇄신과 적응’이라고



공의회의 개막을 선언하시는 요한 23세 교황님

풀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 자체는 불변하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말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여러 문헌들은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공의회의 문헌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전 공의회의 문헌들은 이단에 대한 법적인 제재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는 단죄나 처벌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도전과 요구에 대해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너희들은 잘못 되었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문화읽기

강남스타일? 성당스타일?

— ‘패러디 문화’에 대한 복음적 바라보기 —

김병주 제노 신부 | 대곡본당 보좌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문화적 특징 중의 하나가 생산과 재생산의 문화일 것이다.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생겨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모방한 수많은 콘텐츠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들 수 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 수 3억을 돌파했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 2위, 영국 음반 순위에서도 1위(10월 4일 현재)에 올랐다.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열광적 환호 속에 수많은 패러디 뮤직비디오가 나오게 되었는데 인종, 직업, 문화를 넘어 수십여 개의 패러디가 인터넷에 흘러넘치고 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없는데 개신교의 전도사가 만든 ‘교회스타일’, 그리고 서울의 한 신부님이 청년들과 함께 만든 ‘성당스타일’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러한 패러디들은 종교가 가진 경건함이나 엄격함으로 벗어나 좀 더 친근한 종교의 이미지를 재구축했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디 혹은 모방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콘텐츠가 가지는 내용이 복음적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이 매체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도덕규범을 알아야 하고 이 분야에서 그 규범을 충실히 실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매체이든 그 특성에 따라 전달되는 사안의 내용을 숙고하여야 한다.”(사회매체 교령 §4) 생명과 평화, 자유와 같은 그리스도교 신



앙의 고유한 가치들이 손상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내용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도 없다. 문화를 표현하는 형식과 방법 또한 그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화의 표현 방식은 대단히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고 오락성이 짙기 때문에 모방과 패러디를 통한 문화의 재생산에 이러한 모습이 담길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신앙적 내용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표현 양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결국 복음화의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충분히 세상의 방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접근이나 활용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의식 또한 지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르고 모방해야 할 삶의 내용과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대한 모방으로 환호와 찬사가 쏟아지는 신앙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Imitatio Christi)이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병주**

햇살 담은 이야기 - 마음으로 읽는 삶의 단상

긍정의 감동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 학교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고 훗날 학자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상당히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은 매우 가난하여 빵 한조각과 물만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식사 중인 아인슈타인을 찾아온 그의 친구들은 아인슈타인의 초라한 식사를 보며 놀랐습니다.

“힘들면 우리에게 말을 하지 그랬어, 어떻게든 도와 줘줄 텐데. 아니 빵 한 조각과 물 한잔이 식사의 전부란 말이야? 자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미처 몰랐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는 중이라고!”

웃으며 당당히 말하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에 친구들은 당혹해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굶주림에 지친 아인슈타인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라구. 나는 지금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에 물까지 곁들여서 식사를 하는 중이야.”

아인슈타인의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당한 말에 친구들은 미소를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있지. 이만하면 훌륭한 만찬 아닌가?”

아무리 천재라도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 할지라도 훗날 자신이 위대한 학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몰랐을 것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아무리 힘들 때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으므로 성공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대구주보**

■ 금주의 성인 **성 대 레오 1세, 교황, 교회학자**



성 대 레오 1세, 교황, 교회학자 (11월 10일)

레오 성인께서는 교회 역사 안에서,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대교황’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위대한 행정가이자 신앙의 보존자이며, 고대 교회의 초석을 놓은 분입니다.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를 소집하여 천주강생의 교리를 분명히 하셨으며, 173편의 서간들과 100여편의 강론을 남기셨는데 대부분의 강론이 전해져 오는 유일한 교황님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를 파견하셨고, 교권이 속권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아래 교황권 확립에도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1754년 베네딕투스 14세 교황님으로부터 교회학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종교 음악가와 합창 지휘자의 수호성인이시며,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 제4회 종교인 평화 축구대회



제4회 종교인 평화 축구대회가 10월 29일(월) 대신학원 운동장에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개 종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종교인들이 더욱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와 전국에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날 대회에서는 천주교 팀이 우승했다.

■ 가톨릭사진가회 제12회 정기 사진전시회



교구 가톨릭사진가회(담당 : 장효원 요셉 신부) 제12회 정기 사진전시회가 11월 1일(목)부터 8일(목)까지 교구청 내 한옥 정원에서 열렸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1일 축하식 자리에서 교구 행사 때마다 사진촬영 봉사를 하는 사진가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다.

■ 위령의 날 미사봉헌



위령의 날 미사가 11월 2일(금) 군위묘원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교구 성직자 묘지에서는 총대리 이용길(요한) 신부님 주례의 위령미사가, 또 범물동묘원에서는 사목국장 박영일(바오로) 신부님 주례의 위령미사가 각각 봉헌되었다.

■ 교구 일정 ■

- ▶ 성요셉성당 20주년 및 견진 _ 일시: 11.11.(일) 10:30
- ▶ 효자성당 성전봉헌식 _ 일시: 11.18.(일) 15:00

마음이 더욱 중요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소 모임

수시 성소상담 가능

문의: 김소화데레사 수녀, (010)9383-2754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대구305차: 12.7(금) 19:00~9(일) 18:00

장소: 한티피정의집,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효소단식 피정

기간: 11.16(금) 16:00~18(일) 13:00

장소: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지도: 임동빈 신부 (12명 마감)

문의: (070)4266-0045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가톨릭교우 피정대회

일시: 11.17(토) 10:30~16:00

장소: 지식경제 공무원 교육원(천안)

금석출(대강당)

대상: 우정 사업 본부 직원 및 가족

문의: 조은경 교수, (010)8653-6985

오씨예(Oh!See-Jesus) 젊은이 피정

일시: 11.25(일) 10:00~20:30

장소: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바틀로 교육 센터 (파동)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남, 여

신청: (010)5517-8833 (2만 원)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3일: 11.16(금) 17:30~18(일)

4박5일: 12.10(월) 14:00~14(금)

8박9일: 11.19(월) 14:00~27(화)

에니어그램: 11.9(금) 15:30~11(일)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교육 | 모집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2(월)~2013.2.8(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 (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일시: 상시모집, 계산문화관 5층

자격: 가톨릭교인으로 음악을 사랑하는분

(성악 비전공자도 가능합니다)

신단원 교육: 3개월간 수습 교육

문의: 송재용, (010)3352-8748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가톨릭상지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개강: 11.15(목).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 보육 학위 및 자격증취득

문의: 1577-0361, www.cec.or.kr

살레시오 2013 겨울 신앙학교

중고: 1.5(토)~6(일), 12(토)~13(일)

초(4-6년): 1.8(화)~9(수), 17(목)~18(금)

장소: 살레시오 청소년수련원

주제: 항상 기뻐하십시오

문의: (042)584-0654 (선착순)

경주영어마을 영어캠프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1.7(월)~26(토) 3주간

대상: 초3~중2, 주관: 대구가톨릭대

접수기간: 11.19(월)~26(월)

인터넷접수: www.gev.ac.kr (선착순)

문의: (054)777-8000~5

제4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고: 1.3(목)~2.24(일) 3, 5, 7주 선택

아일랜드 학생들과 정규수업

대일반: 1.1(화)~2.17(일) 6, 7주 선택

국립 더블린대학교 or EID학원

문의: 그린피스E&T, (02)3446-4253

미사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2일(월) 10:00	성건성당	경주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1월 12일(월) 19:00	성동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미사	11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포항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1월 14일(수) 19:00	장량성당
군중후원회 구미지역 월례미사	11월 12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7일(토) 10:00	월성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2일(월) 11:00	계산 주교좌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1월 17일(토) 11:00	성모당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11월 12일(월) 11:00	범어성당	평화를 위한 미사	11월 17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2일(월) 11:00	월성성당	-	-	-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교우님우대할인)

중앙내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업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물거름은 비지니스 모임, 격조높은 최고의 상견례 장소

자글상

대표 :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수성구 황금동 LG전지 빌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 치매조기진단
- 성인병, 5대암, 생애진단검진
- 어지럼증, 두통, 손발저림 진단 및 치료

MRI, CT 영상의학진단센터

- 신경과 전문의 4인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 내과 전문의 2인

대표전화 053)652-2525 www.kinm.co.kr

약령시사람들

탈모 방지 양모 경옥생 삼푸 & 토닉

경옥고차, 음료, 경옥고추장, 된장, 간장(신제품)

3대를 이어온 경옥 명가 (약령향, 경옥활력소)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T. 1644-8807, (053)428-8002

+ 교우님 특별우대 판매

당신의 삶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나래정형외과

발, 발목질환수술/골다공증/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전문 의 원장 박 성 기(리노)

TBC 방송국 옆 두산오거리방면

☎(053)241-8275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법원방향
코리아 알트만 호 텔
그랜드 호 텔
황금내거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법원 방향

TEL 743-4488 FAX 744-1594

리노류마내과
LINO RHEUMATOLOGY CLINIC

관절염 및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류마티스 내과

원장 김 성 동(리노)

www.linoclinic.com ☎ 248-6565

범어내거리 범어롯데캐슬 상가 4층

행사 | 모임

이문희 대주교님과 함께하는

테이아르 샤르댕 연구회 공개강좌

7회 강좌: 11.13(화) 16:00

장소: 예수성심사녀회 성심교육관 (대명동)

주제: 테이아르 드 샤르댕의 에너지론

강사: 최옥식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11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18(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11월 가나강좌 안내

일시: 11.18(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원, 당일접수 (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11월 노동자 미사

일시: 11.16(금) 19:3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38회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정기 전시회

기간: 11.13(화)~18(일)

장소: 봉산문화회관 전시실

주제: 기도, 감사, 평화

오프닝: 11.13(화) 18:00

대구대교구 생활성가 축제

1부: 고리콘서트 11.17(토) 19:30

2부: JAM페스티벌 11.18(일) 14: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강당

교육 | 모집

가정 안에서의 자녀교육 기부 특강

내용: 자녀교육을 위한 주제별 특강

대상: 본당단체 (자모회 등)

유치원 (학부모 대상)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지성인을 위한 신앙특강

일시: 11.17(토) 10: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가장 멋진 삶, 참가비: 5천 원

강사: 두봉(레나도) 주교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오카리나, 대금,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토폰인팅

문의: 476-6211

내당성당 지휘자 모집

문의: 서재석 F.사베리오

(010)6658-2395 / 558-4411

전공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

재능기부 하실 분 모집 (중독상담)

모집기간: 12.14(금)까지

대상: 상담영역 공부하신 분

문의: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

638-8778, 3778

윤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및 회원모집

일시: 11.14(수) 14:00, 수시 모집

장소: 교구청 내 사도회 사무실

자격: 천주교 신자, 고리중인 자

문의: 강청남, (016)520-8330

13회 필리핀 해외봉사 · 어학연수

1차: 1.2(수)출발 (8, 12주)

2차: 2.28(목)출발 (8, 12주)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청소년 필리핀영어연수(5주) 모집

문의: 656-6655 (ARS 4번)

2013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 11.19(월)~23(금) 9:00~16:30

자격: 2006.1.1~12.31 사이에

출생한 대구광역시 거주 아동

방법: 컴퓨터추첨,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2013 자율형 사립고 대건고 신입생 모집

접수: 11.19(월) 9:00~21(수) 17:00

제출: 11.19(월)~22(목), 대건고 안드레아관

입학안내: 대건고 홈페이지 참고

입학문의: 638-9332

채용

상지유치원 버스기사 채용

서류: 교적 사본, 자기소개서(자필),

이력서, 관련서류 등

마감: 11.16(금) 까지

문의: 558-4422

안내

교구법원 공시 (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종호, 박귀현 (요셉피나)

송 월 타 올

* 인 쇄 무 료 *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 반찬, 제사음식 해드립니다 -

대명2동 1995-1번지 교대 앞 영선시장 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팍앤신업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교수출 전문병원 (충남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발리)

<http://www.ksnose.com>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청정제주 신선한 유기농우유 제주우유

유기농우유, 저지방우유, 제주초지방목우유

대구총판매점 대표

최준하(바오로), 박창완(마리아)

☎ (053)426-3300 www.jejumilk.kr



진 성 건 축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 시공 및 상담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 017-242-7927, 053-952-7927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네거리 (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원장 채 희 갑 (바오로)

인공신장실

1호선 상인역 수송내과

첨단혈액투석여과기 25대 / 야간투석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 (053)642-7575